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칼빈의 예정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요한네스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박위근, 조용석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8.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과 콘텐츠

조명은 (대한신학대학원 역사신학)

I.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의 인식이 많이 좋지 않다. 신앙뿐만 아니라 신학의 문제도 심각하다. 그 이유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 기독교는 TV를 비롯한 각종매체와 일반인들의 입에서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안티 기독교(Anti-Christianity)의 여론이 심각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난무한다면 그 공동체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¹⁾ 한국교회가 이처럼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를 굳이 추론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에 근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이유로 기복신앙적인 신앙교육, 물질 만능주의의 교육, 목회자들의 권위주의와 도덕성 타락, 교파주의와 교권욕, 성경적 가르침의 빈곤, 참다운 삶과 변화의 부족, 선교적 동기의 혼돈과 금전제일주의에로의 타락,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가르침의 원인을 지적하고 싶다. 필자는 한국교회의 지탄이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함을 인정하지만 특히 개혁신학의 참다운 이해와 방향성이 잘못된 것에 가장 큰

1) 오윤형, 「칼빈의 성화론 이해」(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11), 1. 2.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의 시대는 영적으로 신학과 영성과 역사의식이 고갈된 시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²⁾ 그 이유는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여 첨단 세계가 열렸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Enlightenment) 사조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여 사상의 자유가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모든 진리가 부정되어지고 가치관의 혼돈이라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실존해야 하는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크리스천이 살아가야 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개혁신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다.

개신교(Protestant)와 개혁주의(Reformed)의 어원이 동일하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역사적 근거에 의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개신교의 용어는 16세기 초 루터파가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반동으로 나와 성립된 용어이다. 즉 1529년에 루터교의 제후들이 당시 카알(Karl) 1세의 종교보장에 대한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스파에르 국회에서 항의(protest)하고 퇴장한 데서 유래한 용어이다. 즉 가톨릭에 반대하는 새로운 교회를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라는 별칭이 생겨났다. 이러한 차원에서 나온 용어로 당시 로마가톨릭에 반대하는 새로운 종교단체들로 성공회 루터교회 등의 개신교회를 의미한다. 반면 개혁신학은 성공회 교회나 루터교회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와 신학적인 면에서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져 왔다. 1560년대에 등장한 개혁(Reformation)이라는 명칭은 루터교와 칼빈주의가 복음주의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사용했지만 1590년 이후에는 루터교회와 개혁교회가 명료하게 구분되어졌다. 개혁교회사상은 루터와 부처의 영향을 받은 칼빈신학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루터교회와 교리와 정치(장로정치)가 서로 다름에 기인하여 개혁신학이라고 지칭하며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개혁신학의 근본적인 의미는 성경적이고 교회사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성경)과 고대 교부신학과 신

앙으로 회귀한다는 사상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혁주의는 하나님중심(Theocentric) 말씀과 권위를 신본주의로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성경적, 정의(정체성, Identify)와 내용성(Contents), 그리고 방향성(Application)이라는 차원에서 정립할 것이다.

II. 개혁신학의 정의(정체성)

그럼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개혁이라는 말을 하면 어떤 급격한 체제변화 또는 새로운 것으로 갱신하는 것을 먼저 떠올린다. 이것은 혁명(Revolution)이지 개혁이 아니다. 개혁은 영어로 'Reformation'³⁾ 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대교부들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상을 말한다. 즉 마틴 루터와 칼빈의 신학개혁사상이 중세의 위클리프(Wyclif)와 후스(Hus)의 개혁사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나아가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Augustine), 이레니우스(Irenaeus), 이그나티오스(Ignatius), 그리고 사도인 베드로, 바울의 신앙과 신학 사상으로 나아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주권적 사상적 개혁이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버그(Wittenberg) 대학 게시판에 95개항(Ninety-Five Theses)을 걸어놓고 토론하고자 했던 그 사건은 바로 당시 천주교회가 성경에서 이탈되어 교리적, 윤리적, 문화적으로 잘못된 것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보고자 한 동기였다.⁴⁾ 그러므로 개혁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신앙의 근거인 말씀과 교리 계승, 하나님의 주권속에서 섭리와 예정,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만민제사장관과 믿음(은총)으로 구원에 이룸과,

3) 'Conform' 은 확정하다. 'Transform'은 바꾸다. 'Reform'은 돌아가다. 회복하다는 뜻이다. Renaissance라는 용어도 고대 회랍과 로마의 문학과 사상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4) Luther's Works, Vol. 25, lectures on Romans Glosses and Scholia, Hilton C. Oswald Editor, concordia publishing house, Saint Louis, Missouri, 1972. 참조.

2) M. Friedman, *The life of Dialouge*, (New York : Harper Torchbooks, 1960), 참조.

미사가 아닌 예배의 참된 회복, 그리고 문화변혁주의(변혁된 삶과 문화)을 성경적으로 회복시킨 것이 바로 개혁이며 교회사학의 방법론이다.⁵⁾

개혁의 핵심은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직적 교회제도(Hierarchy)⁶⁾와 교황신정주의에 치중했던 신학과 신앙을 반대하고 교황이라는 인본주의(Anthropocentric)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중심(Theocentric) 말씀과 권위를 신본주의로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시는 주권회복과 그의 교회와 세상 역사에 역사(役事)하도록 돌려드리는데 있는 것이다. 특히 개혁신학사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심령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까지도 간섭하시는 섭리의 사상을 받아 드리는 것이다. 이 사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신앙고백으로까지의 이어지는 인간의 책임론까지 이어지는 포괄적인 사상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체계이다.

III. 개혁신학의 컨텐츠(Contents, 사상)

1. 신앙의 근거인 말씀과 교리의 계승

개혁신학의 기초적이요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할 신적 근거는 성경과 교리이다. 개혁신학은 신·구약의 성경만이 성도의 신앙과 이성, 그리고 행동에 대한 최고의 지침서이라고 규정한다. 개혁신학의 2대 원리는 형식적인 원리(Formal Principal)인 성경제일주의(Sola Scripture)와 실질적인 원리(Material Principle)인 오직 믿음으로만(Sola Fide)이다. 이는 성경이 신앙과 신학의 근본이며 실질적인 면에서의 믿음(성화가 포함된)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5) 류기중, 『기독교 영성』(서울: 열림 출판사, 1994), 참조.

6) Hierarchy는 중세가톨릭의 성직제도로서 Pope- Cardinal- Bishops- Priest- Monk의 절대적인 계급순으로 짜여진 기구이며 모든 교회정치와 권력이 여기서 나온다.

다는 것을 주장한다. 성경만이 개혁신학사상의 최고의 권위라는 것이다.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그의 강요 1권 6장 2항에서 아래와 같이 피력한다. 아울러 성경의 제일된 사상을 루터에게 전수받아 개혁신학의 핵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만약 참된 종교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늘이 교리에서 그 시초를 찾아야 하며 그리고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한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경건하게 받아드릴 때 참된 이해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⁷⁾

16세기 초의 신앙고백들도 성경의 권위를 증거하고 있다. 1536년의 제네바의 신앙고백은 우리 교회들은 성경만이 신앙과 종교의 규칙임을 다룰 것을 선포한다. 성경은 어떤 인간의 고안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며 다른 것을 섞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의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간주하며 다른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⁸⁾

17세기 초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에서는 성경은 최고의 심판자로 간주하고 있다.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외는 아무도 있을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모든 종교적인 논쟁은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회의의 모든 명령과 고대 학자들의 의견과 인간과 개인의 정신 문제도 이 심판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그의 판결에 순응해야 한다.”⁹⁾

7)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trans. Henry Beveridge(Grand Rapid: WmB. Eerdmans Publishing Co, 1981), Vol 1. ch .6, 2, : If true religion is to beam upon us, our principle must be, that it is necessary to begin with heavenly teaching, and that it is impossible for any man to obtain even the minutest portion of right and sound doctrine without being a disciple of Scripture. Hence the first step in true knowledge is taken, when we reverently embrace the testimony which God has been pleased therein to give of himself.

8) J.k.S. Reid,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Philadelphia : Westminster, 1966), 참조.

9)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신앙고백집」 서울: 경원사, 174.

성경의 권위와 신적기원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교회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마치 살아있는 말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온다고 하였다.¹⁰⁾ 개혁신학의 제일 근본은 성경에 두고 있다.

다음으로 개혁주의 신학은 교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리를 개혁운동의 중요한 지침서라고 말한다. 개혁자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내세웠다. 루터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주요 부분이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라는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¹⁾

칼빈도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지식으로서 교리는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칼빈은 강요 1권 7장에서 교리의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교리가 교회보다 앞서며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교리가 어디서 발견되더라도 교리의 수납은 분명히 교회보다 앞서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없이는 교회 자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²⁾ 말하고 있다. 개혁신학의 교리는 니케아 신조¹³⁾ 와 사도신조¹⁴⁾를 근간으로 하여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25장

10)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ch. 7. 1.

:The authority of Scripture derived not from church, but from the Spirit of God. ...as directly as if God had been heard giving utterance to them.

11) 마틴 루터, 『갈라디아주석』 40. 1. 12.

12)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ch. 7. 2. : ...and the preaching of the apostle, that doctrine, wheresoever it may be found, was certainly ascertained and sanctioned antecedently to the Church since, but for this, the church herself never could have existed.

13) 니케아 신조는 325년에 제1차 니케아 회의 때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통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서방교회가 채택한 것이다. 특히 서방교회는 589년 톨레도(Toledo) 회의에서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 부터(and from Father & Son) 교리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신조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천지를 지으신 이요 보이는 것이나 보

구성),¹⁵⁾ 하이델베르크 신조(129문항¹⁶⁾), 웨스트민스트 신조(35장 구성)¹⁷⁾ 속에 나타난 대·소요리 문답 계승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주권, 섭리와 예정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예정은 개혁신학의 정수이다. 하나님의 주권

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자다.(1-1)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요 빛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의 하나님이다.(2-2) 중략... 그는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우리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입으셨으며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중략... 매장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다시 영광중에 오시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는 우리는 주시며 생명의 공여자이신 성령을 믿는다.(1-3)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 부터 나셨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 그는 예언자에 의해 말씀하셨다. 중략... 우리는 한 세례만을 믿는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에서의 삶을 바라본다. 아멘.”

14)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2-1) 또한 그의 외아들 우리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이해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매장되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을 믿습니다.(2-2)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와 죽은 자의 영생을 믿습니다.(2-3)

15) 스코틀랜드의 신앙고백서는 1-2차에 이루어져 작성되었다. 1차 신앙고백서는 1560년에 존나스가 초안하여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채택하였다. 일차로 작성된 신조는 2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서는 개혁교회들의 신조와는 다르게 성찬 때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차 작성된 신조는 1581년에 반 교황주의를 더 강화하여 왕 의회 법원이 채택하였다. 1638년에는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 신앙고백이 작성되었다. 1637년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가 채택될 때 까지 사용되었다.

16)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us, Catechesis palatina)은 16세기 독일의 팔츠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Friedrich) 3세가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와 올레비안(Casper Olevian)과 함께 성경 본문에 기반한 신앙고백서를 1563년에 작성하여 공포하고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1부: 인간의 비참에 관하여, 2부: 인간의 구속(성부, 아들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례전) 3부: 감사할 일(십계명, 기도) 구성되어 있다.

17)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문은 영국의 왕당파와 의회파의 청교도 전쟁 중에 찰스(Charles) 1세 때 만들어 졌으며, 1643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 전례와 교리 권징의 필요성을 느끼고 영국 스코틀랜드 의회와 정치인들의 5년간 회의를 통해 1948년에 만들어진 신앙고백문이다. 영국의회에서 공인되었다. 영국장로 개혁교회와 미국의 청교도들에게 표준문서가 되었다.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 소요리 문답이 있다.

(The sovereignty of God) 사상은 바울에게서 시작되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이다.”¹⁸⁾ 함으로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발전시켜서 칼빈은 그의 신학사상에서 주권과 섭리 그리고 예정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God's sovereign)이라 함은 “개인과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을 넘어서 우주적 차원(cosmic dimensions)으로 넘쳐난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우주의 전 영역 역사와 영원속에 역사한다. 그의 주권적 의지는 만유의 창조와 보존, 섭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재림 속에서 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다.”¹⁹⁾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단순히 영적인 정부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국가, 역사, 인간 공동체 일반 류 전체에 포괄된 개념이다. 칼빈은 신을 인식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적용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나타내는 가장 큰 사건은 인카네이션(Incarnation)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신 인식은 더불어 자신의 인식이라고 한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 전능자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신 인식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이다.”²⁰⁾

특히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주의 통치적인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임하여 주었음을 말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심으로 아들의 양손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며 보존하시며 도우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사이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²¹⁾

18)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all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하나님의 주권사상은 바울에게서 시작된다. 바울의 주권사상이 베경은 구약의 창12장 7절에서 아브람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함과 여호수아 1장 2절에 근거하고 있다. 영역, 삶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바울은 모두 하나님께 돌린다.

19) 김영환,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95. 참조.

20)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1. 1-2. : On the other hand, it is evident that an never attains to a true self-knowledge until he have previously contemplated the face of God, and come down after such contemplation to look into himself.

하나님의 섭리사상(The Providence of God)은 하나님께서 통치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세우신 규정 또는 피조물들을 위하여 나타내신 돌보심에 있어서 관계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또한 섭리는 적극적이시며 수동적이지 아니하다. 이신론(Deism)²²⁾의 공격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우주의 법칙을 두시고서 창조이래에 계속적으로 세상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간섭하시며 자연법칙을 관여하신다는 사상이다. 여기서 사람의 악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칼빈은 하나님의 허용작정을 말하면서 마지막 악의 문제는 악을 행한 자에게 책임에 돌리며 관여하신다는 것이다.²³⁾

여기서 칼빈은 악에 대한 책임론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유명한 예정론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운데서 인간의 운명과 상태를 말한다. 즉 하나님의 인간구원은 은총과 섭리를 통해서 예정이 결정되어지므로 예정이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정은 쌍방 예정으로 선택과 유기로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사상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 속에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반면 칼빈은 우리들처럼 복음을 은총안에서 받아드리지 않고 복음(언약)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을 내버려두셨다는 것이다.²⁴⁾ 칼빈은 이것을 유기라

21)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2. 15. 5. : For the Father hath given all power to the Son, that by his hand he may govern, cherish, sustain us, keep us under his guardianship, and give assistance to us.

22) 이신론은 자연종교에서 나온 사상이며 정통 기독교의 주권이나 섭리사상을 거부하고 이성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체계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주에서 궤석하시며 섭리하지 않으시며 자연의 법칙으로만 관여하신다는 것이다. 이신론은 17세기 존 톨랜드(J. Tolend)에서 시작되어 18세기에 이르러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지식인들에게 종교가 되었다. W.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Union Seminary, 1969) 참고.

23) 박해경, 『조직신학 요해』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0. 참조: 섭리사상은 하나님께서 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해서 세우신 규정, 또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나타내신 돌보심에 관계되는 제반역사를 말한다. 섭리의 요소는 보존(Preservation), 협력(Concurrence), 통치(Government)를 통해 자연과 인간 역사에 있어서 전능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말한다.

24)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3. 21. 5

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인간이 예정되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한다.²⁵⁾

개혁신학이 말하는 예정은 신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견인을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과 섭리가 예정보다 우위이며 신자들의 위로와 확신을 위한 것이다.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한다.

3.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자율 구원을 거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고 타락된 선한자유 의지가 생겨나 온전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며 은총의 신학이고 성령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은 말씀과 은총은 인정하나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는 주지주의와 교리주의로만 빠져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어거스틴, 위클리프, 루터, 칼빈에 이르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변질된 것을 인식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자 한다.

어거스틴(Augustine)은 하나님의 은총론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한다. 먼저 하나는 은총과 자유의지에 있어서 은총이 우위라는 것이며, 은총은 인간의 내적이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신적인 것이며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지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예정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나 해위와는 상관없이 선행은총을 통해서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정은 선행은총에 선행하며 그 은총을 통해 의롭다고 여기는 자에게 구원을 획득하게 하신다는 것이다.²⁶⁾

25)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3. 21. 7-10.

또 하나는 선행은총을 통해서 선한 자유의지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은총과 자유의지”라는 대비를 통해 자신의 은총론을 정립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인간의 의지는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은총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선행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선택의 자유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의 자유를 굳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그 은총(성령)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치유하고 의를 자유로이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자유의지를 도리어 확립한다는 것이다.

“은혜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굳게 세우고(롬3:31) 믿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는 것처럼 은혜는 선택의 자유를 도리어 굳게 세웁니다. 고로 병든 영혼이 은혜에 의해 치유되며 치유될 때에 선한 자유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²⁷⁾

이처럼 어거스틴은 은총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이어져가는 것으로 성령의 인격론과 사역론을 통해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어거스틴은 바울서신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해석을 우리에게

26) Augustine, “To Simplician on Various Questions” *Augustine: Earlier Writings*, ed. by J. H. S. Burleig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391-92. 이 책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죄만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책의 구성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첫 번째 질문으로서 율법과 계명에 대해 말하고 있다. 후반부의 두 번째 질문은 은총과 자유의지라는 상관성을 다루고 있다. 어거스틴의 본격적인 은총과 자유의지는 On the Spirit and the Grace(412), On Nature and Grace(415), On the Grace of Christ and On Original Sin(418)에서 반펠라기우스적인 논체로 상세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다.

27) Augustine, “On the Spirit and the Letter,” ch. 13. SNPNF, Vol. V. 88. : Should we abandon the freedom of choice for God's grace? My answer is no. Rather we should solidify it. The truth is that grace would strengthen our freedom as if faith do not abolish the law of God. On this account, when the sick souls are healed through God's grace. Just then a good will would come into being.

게 말해주고 있는데 은총에 의한 성령께서 간섭하는 자유의지와 균형의 말하고 있다.

“은총은 믿음과 의지라는 것으로 우리의 것이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 믿고 자 하는 사람과 우리의 마음속에 널리 퍼져 있는 사랑이 성령에 의하여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²⁸⁾ 설명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은총과 자유의지”에서 하나님의 도움(은총)을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자유의지가 바로 참다운 의지이며 하나님의 선행은총이 인간의 의지를 준비시키고 선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즉 성령이 선행은총으로 나타나셔서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신다.

다음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성령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개혁신학은 성령론을 인격론과 사역론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사도신조적인 초기기독교에서는 신약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론은 풍부하고 심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도신경에 나타난 것처럼 삼위일체적 표현(baptismal formula)과 함께 성령의 교리보다는 성령이 체험과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²⁹⁾ 고대 교부였던 어거스틴(Augustine)은 성령이 신성을 인정하며 각위의 독립된 인격으로서 본체의 동등한 지위를 말하는 인격론을 말한다. 성령의 은혜와 인도를 강조하며 은총으로서 나타남으로 성령의 은총이 없이는 스스로 선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어거스틴은 성령의 치유를 강조하고 목회자로서 행하였으며 목회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사역을 강하게 말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신의 도성(The city of God)에서 성령의 기적을 강

28) Augustine, “To Simplician on Various Questions” *Augustine: Earlier Writings*, 375-6. : It is ours to believe and to will; it is God's to give to those who believe and are willing the power to do good works, through the Holy spirit by whom love is spread abroad in our hearts. : Ibid, p. 375.

29) 박해경, 「조직신학 요해」 85.

조하며 사역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불과같이 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적과 생동적인 역사가 오순절 이후에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저서에서 말하기를 기적을 믿는 궁극적인 근거는 창조주의 권능이다(The omnipotence of the creator is the ground of belief in marvel). 라고 말하면서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심과 더불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성령)은 무슨 까닭으로 죽은 자의 몸을 부활시키며, 정죄된 자의 몸이 영원한 불에 타게 하실 수 없는가? 하늘과 땅과 공중과 수중에 있는 무수한 기적으로 우주에 가득히 채우시는 하나님(성령님), 거기 가득한 모두 놀라운 일 뿐만 아니라 감탄할만한 기적과 우주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닌가? 사람과 그 밖에 모든 것에 능력을 주시며 사람에게 재주를 주어 능력을 만들게 하신다.”³⁰⁾

어거스틴은 신학자이며, 설교가이며 저술자였으며 성령의 집행자였고 더불어 약한 자와 병든 자에게 치유 사역을 감당했던 열정적인 목회자이며 영혼의 지도자로서 지성(교리) 영성(성령사역)이 덕성(삶)을 소유한 전인적인 영혼의 지도자였다. 바로 그의 사역은 개혁신학의 선구자이며 성령의 인격론과 사역론의 선구자이기도 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의 인격뿐만 아니라 사역에도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특히 중생의 역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루터는 성령의 역사로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성화로 바뀌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다.³¹⁾ 루터는 그의 저서 소

30) St. Augustine, *The City of God*, translate by Henry Bettenson with a New Introduction by G. r. Evans, (Penguin Book, 2003), 976-7. : Then why should not God(Spirit) have power to mae the bodies of the dead rise again, and the bodies of the damned to suffer torment in the everlasting fire, since he made the world so full of innumerable marvels in the sky, ...which Spirit permits : and the use he makes of his creation is as wonderful as the act of creation itself.

31)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성령론은 은총의 신학이며 말씀의 신학이며 성령의 신학을 말하고 있다. 루터와 칼빈의 성령론은 개신교 스콜라주의의 교리논쟁으로 인하여 지성주의 주지주의신학

요리 문답에서 성령의 역사와 임재로 인하여 신앙과 성화로 되어진다고 말한다. 성령은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칼빈은 성령의 내적 조명과 성화로써 그리고 은사주의 성령론을 말한다. 칼빈은 1538년의 그의 요리문답에서 “신앙과 믿음은 성령의 계몽으로 인한 열매이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비취심과 계몽에 의해서 밝혀지고 우리 심장은 확고한 내적의 설득력으로 확신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다.³²⁾ 특히 칼빈은 성령이 인격론과 더불어 사역론인 은사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오순절 같은 은사가 없는 것은 우리들의 불신앙때문이라고.”³³⁾ 말하면서 성령의 인격론 특히 삶의 열매인 성화론을 강조하지만 은사에 대한 것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며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존 오웬(J. Owen)은 청교도 신학자이나 종교개혁신학의 후예로 그의 저서 “*Discourse Concerning the Holy Spirit*”에서 성령의 인격론과 사역론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의 원리가 성령의 활동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³⁴⁾ 17세기 화란의 개혁주의자들은 경건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생,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화, 성령의 인격론을 강조하면서도 성령의 역사(役事)를 받아드리는 체험신학(an experiential theology)이 성행했다. 이여파로 미국이 개혁주의자 프렐링취젠(J. Frelingshuysen, 1691-1747)과 장로교 탄넬트(Gilbert Tennent), 대각성의 운동의 지도자인 에드워즈(Jonathan Edward)와 휘트필드(George Whitefield) 들은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이었다.

으로 변질되어졌다. 그리고 17세기 정통주의와 19세기 낭만주의와 자유주의에 의해 성령의 사역론이 고갈되었다. 소시이안주의자들은 성령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덕이나 에너지로 보는 견해이다. 알미니안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노력을 주장하기도 한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의 인격론보다는 성령세례와 사도행전적인 성령체험을 강조하여 그리하여 예언과 신유와 병고침의 이적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다.

32) Jhon Calvin, *Catechism*, 1538, tr, Ford Lewis Battles, Pittsburgh :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1975, inquoted, 17.

33) 존 칼빈, ‘주석집’ 고린도전서, 참조.

34) 박해경, 「조직신학 요해」 86.

화란의 개혁신학자인 버크워(G.C. Berkouwer)는 그의 저서 「하나님의 섭리」(*The providence of God*)에서 “기적은 과거 오순절때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는 오순절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감소하지 않으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들은 구속사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후퇴하지 않는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거나 또는 속명주의자에게 자문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성령의 기적과 은사를 강하게 주장하였다.³⁵⁾ 헨드릭스 벌콕프(Hendrikus Berkhof)는 그의 저서 「성령론」(*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에서 성령론의 사역에 있어서 전통교회들이 성령의 은사와 병 치유, 기적이라는 오순절 주의자들의 성령운동은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통교회의 성령운동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에는 비판하고 있다. 벌콕프는 그의 저서 성령론에서 정통주의 조직신학이 소홀히 된 분야라고 지적하면서 양비론을 말하고 있다.³⁶⁾

그러나 일부 개혁신학자들 중에는 성령의 은사인 사역론을 거부함으로써 많은 성경적 오해들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다. 화란의 신학자이며 개혁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는 성령의 일반은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과 각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말하고 있다. 특히 카이퍼나 장로교 신학자 위필드(Whitfield)³⁷⁾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사건은 다시 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죄만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책의 구성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첫 번째 질문으로서 율법과 계명에 대해 말하

35) G.C. Berkouwer, *The providence of God*, (Grand Rapid, Mich : EerdMans, 1990), 223. 김영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재인용.

36) H. Berkhof, *Doctrine of the Spirit*(Richmond Va : John Knox Press, 1964, 김영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재인용, 74-75.

37) 칼빈신학교의 후크마(Hoekema) 교수, 웨스트민스트 교수인 개핀(R. Gaffin)등은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심리적이며 일반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적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은사들은 사도시대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김영한, Ibid.

고 있다. 후반부의 두 번째 질문은 은총과 자유의지라는 상관성을 다루고 있다. 방언, 예언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신학자인 차영배 박사는 카이퍼와 위필드의 성령사역론을 비판하고 있다. 즉 이들이 주장하는 오순절 사건의 단회성의 주장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십자가 구속의 유일한 역사적인 사건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단일회성(Once for all) 이 갖는 대표의 원리와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일회성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십자가와 유일한 역사적 구속 사건은 대표의 원리를 갖지만 오순절 사건은 영속적이며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연속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³⁸⁾

김영환박사도 오순절 신학에서 주장하는 성령의 신학(은사론)의 체험신학을 수용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개혁신학의 성령론을 계승하며 성령의 신학을 말씀의 신학과 병행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개혁신학은 성령의 역사와 다양성, 개인의 마음에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교회, 역사와 국가, 우주에서 성령의 보편사역을 받아드려야 한다. 나아가 창조와 보존, 이성과 양심, 중생과 성화, 교회와 선교, 문화와 역사에서 사역하시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혁신학은 성령의 인격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열매까지도 균형있게 다루어야한다고 강조한다.³⁹⁾ 필자는 성령의 역사는 영속성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로 몇가지를 제안한다. 개혁신학은 오순절의 생동적인 사역을 수용하되 전적으로 말씀(로고스) 위에서 성령의 인격론과 사역론을 받아드리고 전개해야만 한다. 더불어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내적 변화인 성령의 열매를 동시에 강조하는 지성(교리) 영성(성령의 임재), 그리고 덕성(삶)이라는 전인적인 신앙을 형성해야만 한

38) 차영배, “오순절 성령강림의단회성에 관한 R.E. Griffin 교수의 견해와 그 문제점”, 『성령론』 48-49. 김영환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재인용. 80.

39) 김영환, “개혁신학의 성령론,” 기독교학술원 심포지움, 1993, 12월.

다. 초대교회의 영성과 지성 그리고 덕성으로 일관했던 신학과 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의 역사성으로 돌아가는 성령론이 개혁신학의 정수이다.

4.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교회론과 만인제사장 사상

1) 하나님의 교회로서 유기체적인 교회론 정립

개혁주의 교회론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와의 유기체적인 교회의 형태를 계승해온 것이다. 루터와 칼빈은 중세의 교황주의의 하이라키(Hierarchy)제 도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하이라키의 계급속에 존재한다고 하는 로마 교회에서 만이 주어지는 주입된 은총의 교회에 반대하는 것이다. 루터와 칼빈은 성경적인 면으로서의 교회론이다. 칼빈의 교회론은 하나는 성경적 바탕 위에 근거하며 두 번째는 고대의 규칙에 근거한다.⁴⁰⁾ 나아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나아가 위클리프(Wyclif)의 교회론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칼빈의 교회론은 루터의 교회관인 ① 신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② 말씀선포와 성례전이 행해지는 곳 ③ 만인제사장설 ④ 가시적 불가시적 교회라는 많은 공유성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칼빈의 있어서 교회는 택함을 받은 자의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제정하신 기구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그의 신학에서 교회론이 연결되고 있는 점이다.⁴¹⁾ 칼빈

40) 칼빈은 교회(Church, Kirche)의 개념을 성경(헬라어의 어원) 과 고대신앙규칙에서 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①쿠리아 코스(Kuria kus ; 주님께 속한) 이다. 이 개념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로 부름 받은 예배의 모임으로서 의미이다. ② 에클레시아 (Ecclesia)이다. 이것은 헬라어 문화권에서 사용된 단어(to call out)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변형 시킨 것으로 “예정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회중(Congregatio Omnium Predestinatorum)”으로 모임을 말한다. 고대 신앙의 규칙으로는 ① 단일성(Unam Ecclesiam), ② 거룩성(Sanctam Ecclesiam), ③ 보편성(Catholicam Ecclesiam), ④ 사도성(Apostolicam Ecclesiam)은 사도직 계승(Successio Apostolica) 수난의 계승(Successio Passionis), 승리의 계승(Successio Gloriam), 복음의 계승(Successio Evangeleo), 믿음의 계승(Successio Fidelum)을 말하고 있다. Jhon Calvin, *Catechism*, 1538. 참조.

의 교회론은 어떤 특정한 인물(교황, 주교, 사제, 목사, 장로)만을 강조하는 권위적인 지체의 구성을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거부하고 성경적 교부적인 사상으로 돌아가 교회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와 의 유기체적인 모습의 교회론을 네 가지 형태의 본질적 접근을 하고 있다. 먼저본질적인 면에서는 1) 구원 받은 자의 총수로서의 불가시적 교회(Unvisible Church)이다. 루터는 칭의론이 교회의 기초라고 말하지만 칼빈은 주권, 섭리, 예정이 교회론의 기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는 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굳게 연결되어있고 모든 세대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이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예정 받은 자이다.

2) 신자의 어머니로서 가시적 교회는 칼빈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말한다. 루터는 성도의 교제를 중시함으로써 가시적 교회를 강조하나 칼빈신자의 어머니로서 가시적 교회를 말하고 있다.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하는 것처럼 교회는 신자의 영적성장을 돕고 감당하는 곳이라 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모든 사람은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죄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교회)라는 안에 들어갈 때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로마교회가 하이라키(제도적교회) 입장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구원의 기관으로서 교회이다.⁴²⁾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엡4: 4)⁴³⁾이다. 바울이 말함과 같이 예수의 주권과에서 예수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하였다. 성도와 예수와의 영적 연합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교회가 예수중심의 본질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와

41)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4, ch. 1, 1.

42)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4, ch. 1, 4.

43)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도의 불가분관계의 연합성과 단일성에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황의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가톨릭의 견해를 상징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라고 함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나아가 성도는 몸으로써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성도의 교제를 의미한 것이다.⁴⁴⁾

4) 지상의 전투적 상태로서의 교회(이 부분은 위클리프가 말한 것이며 칼빈은 불 언급함)이다. 전투적 교회라 함은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위하여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며 영적인 싸움으로 자신의 불의와 편견 나아가 자신의 죄악과 싸우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이웃의 불의와 죄악을 위해서 싸우는 과정을 말한다. 교회와 세상에서 정사와 권세잡은 자의 행동을 감시하며 불의한 자들에게 대하여 지적하고 참견하고 알리고 고치도록 하는 의로운 싸움을 말한다. 개혁교회는 교회나 단체 또는 국가가 잘못하거나 불의한 일을 하면 과감하게 선지자적 입장에서 경고하고 알리며 고치도록 해나가는 행동을 말한다.⁴⁵⁾

다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개혁주의 교회론은 기능적인 면에서 말씀선포, 성례전 시행, 권징으로서의 참된 표지의 교회론으로 계승을 말한다. 개혁교회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예정론에 근거하여 교회론을 세워나간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참된 교회의 표지(Sign)로서 교회의 거룩성 보편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으로 1) **말씀 선포의 중요성으로서 교회의 모습이다.** 칼빈은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을 지키며 권징을 행하는 것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라고 말하였다. 말씀은 듣는 사람을 시험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중에 상호간에 사람을 키운다고 말씀하신다. 교회는 하

44)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4, ch. 1, 5.

45) W. Farr, *J. Wyclif as Legal Reformer*, (Leiden: E. J. Brill, 1974), 32. : Wyclif의 교회론은 그의 저서 "De Ecclesia"의 첫 부분과 그리고 "De Domino Divino"라는 신적 통치에서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다. 즉 그의 교회론은 본질적인 면에서의 교회론으로 예정 교리와 또 하나는 교회 기능면으로서의 교회 제도화와 성직자관에 대해 비판을 통한 성경적 교회론으로 집약될 수 있다.

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영광이 빛나고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친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신다는 것이다. 말씀선포는 예수의 세계의 통치 수단이 된다.⁴⁶⁾ 개혁교회는 교회안에서 위정자나 통치가 설교를 듣고 행하는 것임으로 통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칼빈이 말씀을 참 교회의 표지라고 한 것은 교황이 말씀위에 자신을 두고서 교황의 칙령이 말씀위에 있다는 것을 거부하며 교만한 것이라 가톨릭의 교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2) 성례전의 시행이 참교회의 모습이다. 성례전은 예배 요소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것으로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예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내적 행위를 통해 신앙을 확증시키는 외적인 표지이기 때문이다.⁴⁷⁾

성례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Sacrament'는 성서에서 나온 말이 아니며 라틴어인 'Sacramentum'에서 유래되어진 말이다. 이것은 맹세(Oath) 혹은 엄숙한 의무(Solemn Obligation)을 뜻하는 희랍어인 Mysterion를 번역한 것으로 군인들이 시저 황제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의미하는 말이었다.⁴⁸⁾ 그러나 성례전의 실제적 의미는 예수에 의하여 제정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가시적인 은혜의 상징(symbol) 혹은 표지(sign)이다.⁴⁹⁾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례를 정의하기를 성례 그 자체가 신적인 실체로 보았다. 즉 신격적인 것이 구체화되어진 것이 바로 7성례⁵⁰⁾로 보았다. 그

러므로 개인은 성례를 떠나서는 은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각 개인이 구원을 성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맛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들에 대한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교권적인 권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자.

첫째로 개혁주의 교회론의 기능면적에서 세례의 성서적 의미⁵¹⁾는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 94문답에서 "세례는 성례인데 이 의식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됨과 은혜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또 주의 것이 된다는 우리의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⁵²⁾ 세례가 예배의 구성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서 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실증하고 그 통치의 미래를 향한 공통적 회개를 실증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세례는 죄 씻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중요성과 함께 특히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즉 우리 주님께 복

것이며 미사를 드릴 때 마다 그리스도는 반복적으로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다. 이는 12세기 Rombard(1110-1161)에 의해서 성립 되었다. ④ 고해성사(Penance): 고해성사는 원래는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입회시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입회 허락을 받기 위해 행해진 전통이었다. 그러나 5세기경에 공적고백이 어려워지자 사적으로 사제에게 고백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도가 정착되어 졌다. ⑤ 혼례(Marriage): 12세기 아벨라가 교회의 공적이 성례로 인정하였다. ⑥ 임직(서품 또는 신품: Ordination): 서품을 받을 때 행하는 의식 ⑦ 종유식(종신례: Extremeunction); 죽기 직전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으로 이것 역시 12세기 아벨라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이들 중 세례 견진 임직은 일생에 한번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는 "영혼에 인호를 침"(Charlatan Indelibility)이다. 가톨릭의 성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개념에서 취한 것으로 질료(material)라는 사물의 잠재적 상태의 실체에 성례를 통해 하나의 형상(form)이라는 말씀의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다. 가톨릭의 성례는 12세기에 Abelard가 견신례, 종신례, 혼례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Robert Pullas가 서품, 고해성사를 추가했다. 그리고 마침내 1439년에 플로렌스 회의에서 이 모두를 합쳐 7성례를 법제화 했다. P. Cadman, *The Three Religious Leaders of Oxford and Their Movement*,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16), 117-118.

51) 성서에 근거한 의미는 첫째로 죄 씻음을 상징하고 확증한다(행2:38, 22:16, 엡5:26). 두 번째 세례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며 확증한다(마 28:19). 세 번째로 주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의 징표이다(행2:38, 41).

46)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4, ch.1, 10.

47) 김소영, 「예배와 생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96.

48) *The ABCS of Worship: A Concise Dictionary*, ed. "Sacrament", by Donald Wilson Stake(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162-63.

49) *The ABCS of Worship: A Concise Dictionary*, 63.

50) 7성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세례(Baptism) ② 견진(Confirmation): 세례 받은 자에게 신앙의 견고를 위해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름 부르는 의식. ③ 성찬(성체성사: Eucharist): 성찬은 화체설(Transubstantiation)로 성만찬의 재료가 성례 시 천상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변화 된다는

종하는 가운데 베풀어진 세례는 우리가 함께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며 인침이다.⁵³⁾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모든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교회와 연합을 의미한다.⁵⁴⁾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함께 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기독교의 일치성을 위하여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다.⁵⁵⁾

이러한 세례는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 성령 공동체에 참여하게 만들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며 장차 올 세계의 생명의 표징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사들을 통하여 세례는 전 생명을 포용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나라들에 확장되어 모든 민족의 성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게 될 그 날을 예지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⁵⁶⁾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의 세례는 언약의 표징으로 교회의 공동생활, 그리고 예배와 긴밀하게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서 본질적이며 초대교회에서 행했듯이 부활절 오순절 주현절등과 같이 공중 예배 시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신앙고백을 하게하고 실시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다.

둘째로 개혁주의 교회론의 기능면에서의 성만찬의 의미는 신약성서에 나타난 근거하여 계승되어왔다. ① 성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룩된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⁵⁷⁾ 이것은 고린도전서 11: 24-25 과 누가복음 22:19 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 “나를 기억하고 이 예식을 행하라” 는 주님의 명령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상(Anamnesis)⁵⁸⁾이라는 말은 한 사건에 대한 기

억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사고의 흐름 속에서 그 발생의 시간으로 돌리는 작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② 성만찬은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감격적 은총에 대한 감사이다.⁵⁹⁾ 이것은 마태복음 26:26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라는 말씀에 근거한다. 감사(Thanksgiving)라는 의미는 신약성서에서 유카리스트(Eucharist: 사례)라는 용어로 통용되었다.

③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한 몸에 다 같이 참여하는 친교이다. 이것의 성경적 근거는 고전 10:16 절⁶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예라는 이 용어는 본래 코이노니아(κοινωνια) 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나의 목적아래 참여하는 무리들이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을 말한다. 즉 단순한 친교의 개념을 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구원과 기쁨과 평화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의 삶의 방향을 같이 해나가는 공동체적 삶이다. 나아가 세상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적 연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교제이다.’⁶¹⁾ 1,2,3째 부분은 개혁주의 교회와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회, 천주교회에서 다 받아드리는 부분이다.

④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영적 임재와 영적 교제이다. 이것의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6:53절에서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영적 비유에 근거한 것이다. 즉 성만찬을 행할 때 영적임재(Holy Presence)⁶²⁾는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중

미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 선포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작용함으로 영어의 ‘remembrances’로 번역하는 것은 무리이다. 기억 또는 기념으로서 회상(Anamnesis)은 어떤 사실을 기억으로서 생각해 낸다거나 기념물을 구경한다는 뜻이 아니고 과거의 사건을 현실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9) 이상식, 「기독교 사상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18.

60) 고전10: 16, “우리가 축사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나”

61) 정장복, 「예배학 개론」 218.

5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4, 15, 6.

5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4, 15, 6.

55)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앙 고백집」 210.

56) 같은 책.

57) 김소영, 「예배와 생활」, 104.

58) Anamnesis는 헬라어의 ‘anamnesis’와 히브리어 ‘zekher’라는 어원에서 파생 되어진 것으로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회상하거나 재현시켜서 이것이 생생한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

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과 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교제(Holy Communion)인 즉 친교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적교제라 함은 성만찬에 참여자는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개혁주의 특히 칼빈에게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⑤ 성만찬은 미래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날, 즉 메시아적 식사의 날에 대한 선포이다. 이 의미의 근거는 마태복음 26: 29절⁶³⁾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사를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의 예배에서 식사를 통한 영적 교제와 친교를 갖는 의미이다. 식사와 영원한 천국에서의 성찬의 의미는 성공회에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면이다.

성례전의 성서적 신학적 의미는 개혁주의 신학의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며 나아가 신앙과 영성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이다. 성례전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세례는 죄 씻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며 나아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발견할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형제를 발견하여 그는 나의 관심이 되고 나는 그의 관심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⁶⁴⁾

나아가 성만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라는 성찬의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회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의식이며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를 통해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영성, 그리고 헌신을 감당하는 자세이다. 바로 이러한 모든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례전은 예배의식

62) 영적임제는 요한 칼빈의 성만찬 개념으로서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이 신자의 마음속에 내재 한다는 의미이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4, 17, 10.

63) 마16:29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64) Donald Macleod, *Presbyterian Worship*(Virginia: John Knox Press, 1965), p.7.

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례전의 포기는 예배의식의 본질의 포기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성만찬 없는 예배는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성도의 성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다고 개혁주의자 칼빈은 말한다.⁶⁵⁾ 바로 이것이 개혁주의 성례전의 전통이며 성서적 역사적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다.

3) 개혁교회의 기능적인 면에서의 교회론의 참교회의 근거는 권징의 시행이다. 한국의 교회는 권징이 시행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권징은 개혁신학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교회가 교인들의 훈련과 교육, 보호,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며 ② 신자가 교회의 규칙을 범하였을 때 시행하는 징계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전자는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게 하는 목회훈련(Ministrial discipline)을 의미하고 후자는 교인의 죄에 대하여 예수로부터 위임받은 교회의 권위로 이는 재판적 권징(Judicial discipline)⁶⁶⁾이라 할 수 있다.

개혁주의신학자인 칼빈은 교회권징이 필요한 것은 교회가 올바른 산태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이 권징은 교회를 지탱하는 근육으로서 이것을 통하여 몸의 지체들이 각각 그 자체의 위치에서 서로 결합되게 한다고 보았다. 또한 칼빈은 참교회가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징의 방법론을 말하고 있다. 첫 단계로는 개인적인 충고를 위한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며, 다음은 교회의 재판정 즉 장로회에 소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이 교제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⁶⁷⁾ 이대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책망되어야 하고 공적인 죄는 공

6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4, 17, 42. 성찬은 완전한 사람 의인을 위해 세정한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을 강성시키며 고무하고 자극하며 그들의 믿음과 사랑(성화, sanctification)을 훈련시키기 위해 세정한 것이다.

66) 조석만, 「기독교회의 본질과 제도」(도서출판, 잠언, 1999), 213.

6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4, 12, 1-2. : 칼빈은 권징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의 참 표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권징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①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자 않게 하며 보전하기 위해서이며 ② 일반적으로 교회

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인 성찬과 마찬가지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도 제1차 제네바에 거주할 시기와 같이 바젤과 스트라스부르크의 지도자들도 철저하게 권징을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⁶⁸⁾ 현대교회는 특히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는 지상에서 완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욱 성화를 위해서 권징을 노력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녀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이지만 불완전함으로 권징(교육)이 반드시 하는 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2) 만인제사장으로 믿음 구원

개혁주의 신학교회는 만인 제사장(All Priest)직과 믿음으로 구원에 이쁨을 계승한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에 기름부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참여한다. 개혁교회신자들은 특별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며 만인 제사장으로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구약에서 드리는 속죄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충족하게끔 드렸기 때문이다. 또한 개혁교회는 미사적의 제사를 거부하고 보편적인 제사장직을 천명하는 것이다.⁶⁹⁾

이러한 근거는 바로 중세 교황청의 면죄부에 반대하여 나온 사상이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Leo) 10세 교황이 중심이 되어 면죄부(Indulgence)의 판매를 독일과 전 유럽에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이 교황청 중심으로 진행되자 면죄부에 판매가 노골화 되었다. 당시 면죄부 총책임자이던 테젤(Tegel)은

안에서 선량한 사람과 불량한 사람의 교제로 인하여 부패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며 ③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여 영·육 간에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68) F.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by Phillip Mairet (Harper & row: New York and Evanston, 1963), 292-3.

69) 김영환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94-95.

면죄부의 효력을 선전하면서 “돈이 상자에 쟁그렁하고 떨어지자마자 연옥에 있는 사자(死者)는 영혼이 구원 받는다.” 라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면죄에 대한 가격을 정하여 제후는 25불, 3급 문인들은 10불, 3류 시민은 6불, 그 이하는 1불로 정하여 판매하였다. 교회는 면죄부가 더욱 활성화되고 많이 팔리는 기승을 부리자 가속하는 모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루터는 비텐버그(Wittenberg)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을 걸고서(1517년 10월 31일)면죄부는 비 진리임을 천명하고서 교황청의 면죄부를 공격하였다. 루터가 주장하는 95개항의 면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내용 = 1. 면죄부는 여호와와의 징벌을 없앨 수 없으며, 교회의 정죄만 없앨 뿐이다.
- 2. 면죄부는 죄를 사할 수 없다.
- 3. 면죄부는 여호와께 의당 받아야 할 형벌을 없이 할 수 없다.
- 4.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속죄표가 쓸 데 없으며 회개한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음
- 5. 교황은 예수의 공로나 성도의 공로를 팔 수 없으며 정죄만 없앨 권한이 있다.

루터는 세 번째 논문은 “크리스천의 자유”(On christian liberty, 1520, 11)에서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부는 신앙(자유)에 관한 문제로 내적 신앙을 주장하고 있다. 제 2부는 행동(봉사)에 관한 문제인데 이는 신앙의 외적인 것으로 저작 되어있다. 루터는 나아가 크리스천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에 의한 “믿음으로 의로워짐”(Justification by Faith)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유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성도가 예수께서 이미 속죄를 했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장이라는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다.⁷⁰⁾

루터의 이신칭의론(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은 문자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뜻한다.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는 오직 sola fide, sola gratia, 즉 공로적인 의미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 점에 있어서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되지만 믿음은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주장한다.⁷¹⁾

바울과 더불어 우리는 사랑의 행위가 수반된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이 믿음은 사랑의 행위 없이, 그리고 사랑의 행위 이전에 우리를 의롭게 한다.⁷²⁾

또한 루터는 독일의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The address to the German novelties)를 발표하게 된다. 이 논문의 내용은 첫째로 신자들의 “만인제사장”(All believes the priest)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교황만이 성경해석권이 없고 모든 성도에게 성경의 해석권이 있음을 강조하게 된다. 나아가 세 번째로 신자들이 만인제사장이라고 주장하며 교황만이 교회 회의 소집권이 없음을 천명하게 된다. 루터는 이 책에서 교황의 월권, 성직자의 독신, 교회 사치를 비난하고 신학교육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⁷³⁾

이처럼 개혁주의 신학은 성도가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것과 만인제사장직의 계승을 정립한다. 개혁신학은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를 거부하며 철저하게 예수그리스도의 단회적인 속죄제로 인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며

70) Martin, Luther, *Basic Theological Writings*, ed. by Timothy F. Lull, (Minneapolis : Fortress Press, 1989), 21-22.

71) 마틴 루터, “로마서 서문,” 67.

72) 마틴 루터, “갈라디아서 주석,” 165.

73) Martin, Luther, *Basic Theological Writings*, ed. by Timothy F. Lull, 19.

나아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제사장의 소임을 하는 것이다.

5. 문화변혁주의와 변화된 삶

개혁신학의 마지막 컨텐츠는 문화변혁주의이다. 그리스도인은 문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한마디로 문화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화와에게 최초로 주신 선물이다. 이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타나는 것으로 ① 원래 문화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간의 전적 책임이었다. 그러나 ② 아담과 화와가 타락함으로 순수한 하나님 중심(Theocentric)의 순수한 문화에 인간중심(Anthropocentric) 문화로 전락하였다. ③ 순수한 하나님중심의 문화유지(유대주의)와 인간 중심의 타락된 문화시작이다. ④ 인간의 부패와 그 문화의 파괴이다. ⑤ 그리스도 초림으로 인한 인간과 문화의 갱신과 변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⁷⁴⁾ 이러한 인간의 문화 속에 기독교는 어떠한 상태를 취해야 하는가?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일치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는 일치주의 문화관이다. 아니면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배척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는 배타주의 문화관이다. 개혁주의 문화관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하듯이 인간의 문화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환원하는 변혁주의 문화관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문화관을 살펴보자. 개혁주의 문화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 신앙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세상의 모든 영역에 구현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에 처소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세 저작으로 통해서 1) 첫 번째 논문 “독일의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The address to the German novelties), 2) 두 번째 논문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Babylon Captivity of church), 3) 세 번째 논문은 “크리스천의 자유”(On christian liberty)에서 개혁주의 문화관을 보여주고 있다. 먼

74) 로버트 E. 웨버, “기독교 문화관” 이승구 역, (서울 : 도서출판 엠마오, 1990), 31.

저 루터의 직업 소명관(Vocation)이다. 그는 구원받은 신자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 사회적 활동과 직업현장, 결혼과 가정생활, 자녀교육, 사회와 국가의 영역에서 “샘솟듯 넘쳐 흘러나가는 사랑”(Quellende Liebe)을 구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자는 교회율타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속의 한 가운데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터는 소명을 세상의 직업과 직책 전부를 다 말하고 있다. 이는 변화된 신자가 타락된 세상의 문화를 변혁하는 것을 리차드나 칼빈처럼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직업소명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했다는 것이다.⁷⁵⁾

칼빈은 그의 강요에서 문화진취적인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시작하여 경건, 사랑, 존경,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천국과 지옥, 부활, 영생, 등 종말론으로 끝내지 않고 시민 정부(the civil magistrate)에 까지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세상의 정부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기독교적 문화이념으로 ‘문화, 경제,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창조된 질서와 그 속에 있는 사람’속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칼빈은 루터의 직업 소명관을 더욱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주권속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정치가 하나님의 주권속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지는 소명이라고 말하였다. 나아가 재화 즉 경제적인 물질도 하나님이 관여한다는 사상을 강조한다.⁷⁶⁾

더불어 칼빈은 노동관도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다는 것을 천명한다. 인간은 노동의 축복을 받았으므로 창조적인 명령을 이행해야하며, 임금 또한 축복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노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여러 분야 하나

75) 김영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143.

76) H. Thielicke, 'The Theological Debate on Church and State,' 고범서역, 「교회와 국가」 종교와 사회논총3, (법화사, 1984), 160.

님의 모든 주권아래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의 변혁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변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리차드 니버(R. Richard. Niebuhr)⁷⁷⁾는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의 사상을 말하면서 문화변혁을 강조하고 있다. 니버는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 중심의 변혁된 문화로 되어야하며 그리스도는 문화의 변혁자라고 말한다. 그는 세 가지 형태로 문화의 방향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변혁주의는 창조를 긍정한다. 인간이 자기 존재를 주어진 왜곡으로 다스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는 긍정적이고 질서롭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변혁주의자는 인간 본성의 부패가 창조 때 주어진 선의 타락으로 변질되었다.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대되는 것이요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타락이 변혁된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혁주의자는 역사속에서 부패된 인간의 본성과 질서를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해야 한다.⁷⁸⁾ 니버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혁된 문화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재적이며 하나님의 통치에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의 문화관은 변혁주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일반은총, 창조의 명령을 인정한다. 아울러 기독교의 문화행위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한다. 더불어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은 역사와 세계의 문화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변혁시켜야 한다. 민족주의, 인간의 예술, 학문 등이 신중심으로 변혁되지 않으면 자율성에 빠짐으로 자기 교만에 이른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는 변혁되어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은 역사와 사회에 부패한 문화를 변혁시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이상형으로 접근하려고 해야 한

77) 리차드 니버는 현대 개혁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자이며 미국의 개혁신학을 문화신학으로 이끈 기독교 윤리학자이다. 그는 그의 저서인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를 저술하여 문화를 5가지 유형론적으로 구분하여 대립형(opposition), 일치형(agreement), 종합형(synthesis), 역설형(paradox), 변혁형(transformation)로 나누어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문화 변혁주의를 강조한다.

78)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홍통역, 「그리스도와 문화」서울: IVF, 1999, 180.

다. 회의주의와 혁명주의를 거부하며 신중심의 문화관으로 가는 것이 개혁신학의 정수이다.

V. 결론

개혁주의 신학은 살피본바와 같이 고대교부들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상을 말한다. 즉 마틴 루터와 칼빈의 신학개혁사상이 중세의 위클리프(Wyclif)와 후스(Hus)의 개혁사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나아가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Augustine), 이레니우스(Irenaeus), 이그나티오스(Ignatius), 그리고 사도인 베드로, 바울의 신앙과 신학 사상으로 나아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주권적 사상적 개혁이다.

개혁신학은 전적으로 신앙의 근거인 말씀과 교리 계승, 하나님의 주권속에서 섭리와 예정,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만민제사장과 믿음(은총)으로 구원에 이룸과, 미사가 아닌 예배의 참된 회복, 그리고 문화변혁주의(변혁된 삶과 문화)를 성경적으로 회복시킨 것이 바로 개혁이며 교회사학의 방법론이다. 즉 신본주의로 회복되어 신학과 신앙, 그리고 변화된 삶이 삼위일체적으로 정립되어질 때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가 치유되어 질 것이다.

아울러 개혁주의 신학은 11한가지의 콘텐츠를 정립하여 성경적이고 고대 신앙적인 방법으로 회귀하며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며 나아가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예배의 변혁**이다. 즉 균형적인 예배로의 환원이 필요하다. 현대 개혁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예전 병행이 없는 설교중심의 예배이다. 이러한 원인은 역사적인 전통과 신학적 불 이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성례전 중심의 예배를 말씀중심의 예배로 개혁한 것이지만 쾰빙글리는 제외한 루터와 칼빈 그 외 개신교는 성례전

의 가치와 중요성을 절대로 절하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전통적 사실이다. 루터는 여전히 말씀과 성례를 동일하게 중요시했다. 루터는 그의 논문 “거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몸인 축복된 성례와 형제단”(The Blessed sacrament of the Holy and true body of Christian and the Brotherhoods)에서 성례전을 세 가지로 표현했다. 첫째는 외적 징표(outward sign)로 빵과 포도주같이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이며 둘째는 의미(significance)인데 성례전에 참여하는 자는 확실한 내적 선물로서 신성한 약속이며 세 번째로 성례전은 신앙이라고 했는데 이는 외적 징후와 의미를 가능케 하는 견인차라 하여 이는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며 공동체의 영적인 몸이다.⁷⁹⁾하여 성례전의 예배에 있어서 비중을 중요시 했다.

칼빈 역시 예배에 있어서 성례전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증강시킨다. 다시 말하면 성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필요하다. ⁸⁰⁾그래서 성례전이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시각과 감각에 의뢰함으로써 ‘약속을 우리에게 사생화를 그리듯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말씀과 성례는 문서에 찍힌 인장으로까지 비유한다. 문서가 백지일 때는 인장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나 문서일 경우 그것은 인장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즉 성례는 말씀에 첨가된 것이어서 성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언약의 보증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빙성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⁸¹⁾즉 성령은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강조한다. 칼빈은 성례전을 매주일 시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의 개혁교회는 칼빈의 교리와 사상을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앙증진의 절대적인 예배에 있어서 칼빈이 강조하는 말씀과 성례전

79) Dillenberger, John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이형기 역, 「루터 저작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55-6.

8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4, ch. 14, 3.

8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4, ch. 14, 5-6.

의 균형을 버리고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개혁교회는 칼빈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진보계열인 츠빙글리의 전통(년 4회 실시를 강조함)을 거의 채택하고 있으나 오히려 츠빙글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년 2회로 축소하고 있다. 실로 불균형적인 형태이다.

둘째로 교리교육의 활성화가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리는 성경에 근거한 제2의 성경이며 우리의 지식을 고상하게 이끌어주는 최상의 교육지침서이며 신앙상승의 동반자이다. 교리(Doctrine) 기독교신앙의 내용, 신앙의 지적 표현이다. 즉 기독교의 자기지식으로 계시의 내용을 지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객관적이다. 즉 체계적으로 신앙을 알아가는 학습이며 지침이다. 또한 교의(Dogma)는 초대교회에서 교리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내적신앙을 강조하기 위한 지침서이다. 교의는 헬라어 어원으로 “*δουματα*”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기의 학파와 타 학파와 구별할 때 쓰였다. 초대교회의 3대학파인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학파, 라틴학파에서 각각 교리에 근거하여 자기 학파에 맞게끔 만든 소교리의 지침서이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장로교 특히 개혁교회들의 교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의는 하나님 계시에 대한 기독교 사상에 대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리이며 기독교 특유의 사상 체계이다. 기독교 초기 팔레스타인(Palestine)에 있던 기독교 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시키기 위해 최종적인 신앙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고로 교의는 교리에 포함되는 더 작은 개념이다.

교리의 중요성(과제)이 왜 중요한가? 교리의 발전과 기원을 다루는 학문이다. 신조. 성경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기독교 전통에 기초해서 교리는 사도적 견지에서 기술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교리는 4세기 초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기독교의 뼈대라 할 수 있다. 교리의 발전을 기술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4세기 초에 형성된 기독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추적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순수성과 전통성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며 후대에 변질 없이 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

서 개혁신학은 교리를 수요일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에 절대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심각한 경계와 더불어 퇴진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WCC는 교회가 아니다. 정치단체이며 혼합종교단체이다. 정통교회는 교회의 신앙고백에 근거하고 있다. 즉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마16장 16절)” 라고 하나님과 그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다. 즉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런데 WCC는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신론과 기독교론, 교회론을 거부하며 종교의 연합이라는 화두로 교회를 파괴하는 단체이며,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이다. WCC는 종교사학과(Religion Geschichtliche Schule), 종교혼합주의(Religious Syncretism),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급진주의(Radicalism), 칼 마르크스주의(K. Marxism)사상들이 한데 어우러져 성경의 고백주의를 배격하게 하는 정치단체이며 인본주의적인 비교회(Anti-Church)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개혁신학의 방향성은 사회의 파수꾼으로서 복음 선포와 선교 활동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구속하심은 물론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심도 있다. 그러나 더 큰 의도와 궁극적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빠르게 도래하게 하는데 있다. 개인의 구원에만 만족하고 안일한 자세를 취하는 자는 게으르고 악한자라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죄악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과 비리 그리고 악이 일어남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복음의 결여에서 오는 것이다. 세상이라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애정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악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변혁되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오는 세대의 감당할 사명이다. 말씀의 확신성에 거한 중인의 삶은 순교적인 자세로 실천할 때만이 선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 땅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당위성을 항상 의식해야한다.

다섯 번째 직업의 파수군이라는 가치관을 인식해야 한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인간실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칼빈은 직업(Vocation)을 신의 소명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명은 곧 사명이며 나아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을 갖는다. 복음 선포의 효과적인 것은 메시지를 전함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헌신할 때에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중의 길을 역사 위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종교인은 종교인다운 가치와 헌신으로 봉사해야 하며 기업인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권을 하나님에게 돌리며 기업의 사회 환원이 성취되도록 의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명의식에서 행하게 될 때 역사 안에 일어나는 각종 병리와 악의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앞마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개혁신학은 역사의 파수꾼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구제라는 봉사는 역사의식의 사명이다. 한국의 초대 교회는 그 당시(1910-20) 전체인구의 1%에 달하는 약 20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시대에 끼친 영향은 30-50%라는 수치적인 결과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봉건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사회에 복음과 아울러 의료 교육 계몽 등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는 소망의 사회를 가져오게 한 것이었다. 이것이 오늘의 기독교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사회에 대한 구제와 봉사와 헌신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나 복음전파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나아가 사회에 대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명인 것이다. 더불어 초대교회가 지향했던 지성(교리) 영성(성령의 임재), 그리고 덕성(삶)이라는 전인적인 신앙을 형성해야만 한다. 초대교회의 영성과 지성 그리고 덕성으로 일관했던 신학과 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의 역사성으로 돌아가는 성령론이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의무인 것이며 개혁주의 신학의 사명이다.

참고문헌

(국외)

- Augustine, "On the Spirit and the Letter," ch. 13. SNPNF, Vol. V.
- Augustine, "To Simplician on Various Questions" *Augustine: Earlier Writings*, ed. by J. H. S. Burleig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 Augustine, *The City of God*, translate by Henry Bettenson with a New Introduction by G. R. Evans, Penguin Book, 2003.
- Dillenberger, John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이형기 역, 「루터 저작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 F.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by Phillip Mairet, Harper & Row: New York and Evanston, 1963.
- P. Cadman, *The Three Religious Leaders of Oxford and Their Movement*,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16.
- G. C. Berkouwer, *The Providence of God*,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90.
- H. Berkhof, *Doctrine of the Spirit* (Richmond Va: John Knox Press, 1964).
-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홍룡역,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F, 1999.
- H. Thielicke, "The Theological Debate on Church and State," 고범서역, 「교회와 국가」 종교와 사회논총 3, 범화사, 1984.
-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WmB. Eerdmans Publishing Co, 1981.
- J. K. S. Reid,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6.
- Luther's Works, Vol. 25, *lectures on Romans Glosses and Scholia*, Hilton C. Oswald Editor, concordia publishing house, Saint Louis, Missouri, 1972.
- The ABCS of Worship: A Concise Dictionary*, ed. "Sacrament", by Donald Wilson Stake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 W. Farr, *J. Wyclif as Legal Reformer*, (Leiden: E. J. Brill, 1974), W. Farr, *J. Wyclif as Legal Reformer*, Leiden: E. J. Brill, 1974.
- W.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Union Seminary, 1969).
- M. Friedman, *The life of Dialouge*,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0.

(국내)

류기중, 『기독교 영성』 서울: 열림 출판사, 1994.

박해경, 「조직신학 요해」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0.

존 칼빈, 『주석집』 고린도전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신앙고백집」 서울: 경원사.

오윤형, 「칼빈의 성화론 이해」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11.

차영배, “오순절 성령강림의단회성에 관한 R.E. Griffin 교수의 견해와 그 문제점”, 『성령론』, 1994.

김영환, “개혁신학의 성령론,” 기독교학술원집포지음, 1993, 12월.

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조석만, 「기독교회의의 본질과 제도」 도서출판 잠언, 1999.

로버트 E. 웨버, “기독교 문화관” 이승구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0.

마틴 루터, 「갈라디아주석」 40. 1. 12.

김영환,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95.

Kant에 의한 Newton 물리학적 세계관의 철학에로의 도입과 서양 신학*

한철하(ACTS 명예총장)

I. Kant는 Newton의 물리학적 세계관을 어떻게 철학에 도입하였으며, 서양 신학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1. Kant는 Cartesian 철학에 입각한 종교론자요, 계몽사조 운동가로서 불 신앙의 구조를 사상체계 속에 도입한 첫 사상가이다.

Immanuel Kant(1724-1804)는 세 가지 점에서 19세기, 20세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신학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근본적으로 Cartesian 철학자 종교론자로서 Descartes의 “자아” 속에서 철학과 종교를 세웠습니다.

둘째로 Kant는 “교회, 성경, 왕권” 등의 모든 “권위(authority)”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려는 “계몽사조(Enlightenment)” 운동가로서 “신앙”으로써가 아니고 “이성”으로써 신학 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셋째로 그는 또한 Newton 물리학의 태양 중심의 세계관을 신학에 도입함으로써 무신론적 세계관을 신학에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신학이 상대로

* 본 논문은 한철하박사의 “21세기 인류의 살길”(칼빈아카데미, 2016)에 게재된 글임.